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윤한진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후 12:11-21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내가 두려운 것은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 주일대표기도

10월 1일	10월 8일
류외자	서경열

###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아침묵상	(화-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 직분에 대한 이해와 오해

교회 직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수반되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 분란의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시뻘꺼리가 되고 맙니다.

첫째, 교회 직분은 수직적 계급 구조가 아닌 수평적 은사 구조입니다.

직분은 절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자는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자로 헌신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탈권위화가 이뤄져야 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것일 뿐 이것이 나의 자랑이나 수준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분자가 가져야 할 참된 권위는 영적인 권위일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도전을 주며 귀감이 되는 본을 보여줄 때 그 권위는 성도들이 세워주는 것이며 모든 성도들의 신앙적 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직분자는 자기 자신보다 언제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자입니다.

직분자는 교회와 성도를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품과 신앙을 향기로서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셋째, 직분자는 바른 생활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직분자는 교회 안에서만 직분자가 아닙니다. 나의 일상 속에서도 이웃들과 모든 만남 가운데 크리스천 다운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간혹 음식점을 방문했다가 불편한 장면을 목도할 때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옆 테이블에서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는데, 서로를 장로님이라고 호칭하면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에 덕이 되는 행동인지 스스로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생각해 볼 일입니다.

직분은 고귀하고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분자로 세워졌다는 소명의식과 성경적 바른 가치관의 정립이 직분을 통하여 교회를 더욱 새롭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교회의 모든 직분자가 이 마음이길 소망합니다.